

2025
고2 문학
창비

2025 고2 문학 창비 | 2(2)(1) 예덕선생전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선굴자가 자목에게 말하는 방식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선굴자가 생각하는 참된 벗 사귀미 무엇인지, 엄 행수의 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굴자(蟬橘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분탑 동쪽에서 사는데 마을 안의 똥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 행수(行首)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일을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子牧)이 선굴자에게 물었다.

“그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땀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 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의 친한 사람으로 막일을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 서기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문하를 하직하려고 합니다.”

선굴자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거기 앉게. 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해 줘.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굿을 못 한다고 하네. 자기 생각으로는 이 거야말로 내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 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 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그런 때 칭찬만 하면 아침에 가까워서 멧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흥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달라지네.

그러니까 그의 장처가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어름어름 당장은 탄전을 한단 말일세.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골을 내지는 않을 것일세.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숨겨 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처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한다면 마치 가려운 데나 굶어 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할 것일세. 가려운 데를 굶는 데도 묘리가 있네그러. ㉠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에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네.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각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뺄면서 말하였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인 노미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굴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 저기 있지 않고 ㉢ 여기 있는 것일세그러. 대체 장사치의 벗은 잇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벗은 아침으로 사귀네.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세 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잇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네. 이렇게 사귀는 벗은 천 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만 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세.

저 엄 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중략)

그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 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 똥,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굶어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삼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려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돈이 많아 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그려.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엽교,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등의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 엄 씨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썩하게 가꿔야만 일 년에 육천 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때가 되고 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중략)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저녁 공무를 같이 보는 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닭알찌개가 생각나고, 벼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것일세.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와하고 들고 일어나서 발이랑이 묶어 자빠지네.

㉢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가 그래 농사일이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주역』에

서 짐 질 것도 있고 탈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자리에는 깨끗지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 주는 것도 깨끗이 가란 뜻일세그려. 저 엄 행수가 똥을 지고 거름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일세.

이로 본다면 ㉠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 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 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 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 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일세.”

- 박지원, 「예덕선생전」

1.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에 대해 말할 때에는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 ② ㉡: 엄 행수는 조선 후기 상업의 번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③ ㉢: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관용적 표현과 같은 것이다.
- ④ ㉠: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욕망을 드러낸 인물이다.
- ⑤ ㉢: 신분과 외양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2. ㉔와 ㉕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오직 마음으로 벼를 사귀고 인격으로 벼를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벼이 되네.
- ② ㉔: 장사치의 벼는 잇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 벼는 아침으로 사귀네.
- ③ ㉔: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각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 ④ ㉕: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
- ⑤ ㉕: 저 엄 행수라는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그러. 대체 장사치의 벼는 잇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벼는 아침으로 사귀네.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세 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잇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 오직 마음으로 벼를 사귀고 인격으로 벼를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벼이 되네. ㉔ 이렇게 사귀는 벼는 천 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만 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세. (중략)

그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 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 똥,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굶어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

어서 삼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려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그러.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등의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엄 씨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썩하게 가꿔야만 일 년에 육천 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웃옷 입고 띠 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 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 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저녁 공무를 같이 보는 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닭알찌개가 생각나고, 베 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것일세.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와하고 들고 일어나서 발이량이 묶어 자빠지네.”

- 박지원, 「예덕선생전」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장된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스스로없이 속내를 털어놓고 소탈하게 대화하는 친구
- ②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하여 만나는 시간, 장소에 걸맞은 옷차림을 갖추는 것을 중시하는 친구
- ③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과거에 잘한 일이 있으니 저지른 잘못은 사소하다며 위로해 주는 친구
- ④ 자주 보지는 못해도 매일 인사말을 SNS로 보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프트콘을 선물해 주는 친구
- ⑤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멀리하는 친구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굴자(蟬橘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본탑 동쪽에서 사는데 마을 안의 똥거름을 처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 행수(行首)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일을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子牧)이 선굴자에게 물었다.

“그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땃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 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의 천한 사람으로 막일을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 서기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문하를 하직하려고 합니다.”

선굴자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거기 앉게. 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해 줘.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굿을 못 한다고 하네. 자기 생각으로는 이 거야말로 내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

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 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그런 때 칭찬만 하면 아침에 가까워서 멧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흥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달라지네. 그러니까 그의 장처가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어름어름 당장은 탄전을 한단 말일세.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골을 내지는 않을 것일세.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숨겨 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처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한다면 마치 가려운 데나 긁어 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할 것일세. 가려운 데를 긁는 데도 묘리가 있네그러.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거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에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네.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각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그래, Ⓐ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뺄면서 말하였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인 노미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굴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 여기 있는 것일세그러. 대체 장사치의 벗은 잇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 양반님네의 벗은 아침으로 사귀네.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세 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잇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네. Ⓔ 이렇게 사귀는 벗은 천 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만 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세.

저 엄 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그가 밥을 자실 때에는 굴떡굴떡, 걸터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쿵쿨, 웃음을 웃을 때에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멍하니 등신과 같이 보이네. 흙으로 쌓고 짚으로 덮은 데다

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새우처럼 등을 꾸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밭채를 짚어지고 똥거름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구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시월로 잡아들면 살얼음이 잡히네 그려.

그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 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 똥,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굶어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삼을 들고는 허리를 꾸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려 하지 않고 풍악을 잡치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 그려.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등의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엄 씨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썩하게 가꿔야만 일 년에 육천 냥 돈을 벌어들일 수 있네.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옷을 입고 띠 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 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그러고 돌아와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밭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 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저녁 공무를 같이 보는 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닭알찌개가 생각나고, 베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것일세.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와하고 들고 일어나서 발이랑이 묶어 자빠지네.

㉡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가 그대 농사일이니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주역』에서 짐 질 것도 있고 탈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 굉장한 벼슬자리에는 깨끗지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 주는 것도 깨끗이 가란 뜻일세 그려. 저 엄 행수가 똥을 지고 거름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일세.

이로 본다면 ㉣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 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 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 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 이 마음을 더 키워 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일세.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궁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요,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기에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 엄 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 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 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 박지원, 「예덕선생전」

신유형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외에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 즉 주제 의식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검소한 생활을 하는 엄 행수의 삶을 긍정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양반들의 삶을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4.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를 추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타고난 분수에 맞지 않게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② ㉡: 진승, 오광, 항적을 비롯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정당화하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③ ㉢: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의로움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체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분이나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⑤ ㉤: ‘이 마음’은 분수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선굴자는 엄 행수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굴자(蟬橘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본탑 동쪽에서 사는데 마을 안의 똥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 행수(行首)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일을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子牧)이 선굴자에게 물었다.

“그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텃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 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의 천한 사람으로 막일을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 서기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문하를 하직하려고 합니다.”

선굴자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거기 얹게. 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해 줘.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곳을 못 한다고 하네. 자기 생각으로는 이 거야말로 내 장치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 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 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그런 때 칭찬만 하면 아침에 가까워서 멧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흥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달라지네. 그러니까 그의 장치가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어름어름 당장은 탄전을 한단 말일세.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골을 내지는 않을 것일세.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

니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숨겨 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처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한다면 마치 가려운 데나 긁어 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할 것일세. 가려운 데를 긁는 데도 묘리가 있네그려.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에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네.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각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그래, 이렇게 벼를 사귀면 좋겠는가?”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뺀면서 말하였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인 놈이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골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그려. 대체 장사치의 벼는 잇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벼는 아침으로 사귀네.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세 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잇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 오직 마음으로 벼를 사귀고 인격으로 벼를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벼이 되네. 이렇게 사귀는 벼는 천 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만 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세.

저 엄 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그가 밥을 자실 때에는 굴떡굴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쿵쿵, 웃음을 웃을 때에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멍하니 등신과 같이 보이네. 흙으로 쌓고 짚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새우처럼 등을 꾸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밭채를 짚어지고 똥거름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구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시월로 잡아들면 살얼음이 잡히네그려.

그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 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 똥,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굶어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려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그려.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등의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엄 씨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썩하게 가꿔야만 일 년에 육천 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웃옷 입고 띠 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 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밭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 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저녁 공무를 같이 보는 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

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닭알찌개가 생각나고, 배운 입을 입게 되면 모시웃이 부럽게 되는 것일세.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와하고 들고 일어나서 발이랑이 묶어 자빠지네.

㉠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가 그대 농사일이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주역』에서 짐 질 것도 있고 탈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자리에는 깨닫지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 주는 것도 깨닫지 못한 뜻일세그러. 저 엄 행수가 똥을 지고 거름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닫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일세.

이로 본다면 깨닫지 못한 가운데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 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 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 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일세.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궁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요,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기에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 엄 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 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 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 박지원, 「예덕선생전」

6.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는 당시 양반들의 허위의식이나 지나친 욕심을 비판하고 있군.
- ② 자목은 양반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우월감을 가지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있군.
- ③ 선글자는 예의나 격식을 따지지 않으며 실용적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엄 행수의 삶을 예찬하고 있군.
- ④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내용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군.
- ⑤ 사람은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다는 내용은 신분 대신 집안이나 재산을 타고 나는 현대 사회를 고려할 때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겠군.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같은 대상에 대한 상반된 시각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상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을 통해 작가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 ㉠의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에 대한 ‘선글자’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득룡망축(得隴望蜀)
- ② 호가호위(狐假虎威)
-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 ④ 낭중지추(囊中之錐)
- ⑤ 교언영색(巧言令色)

9. 윗글의 형식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속담이나 다른 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대화에 의한 전개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
- ③ 역순행적 구성 방식에 의해 사건의 실마리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이용한 인물의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성이 느껴진다.
- ⑤ 의식의 흐름에 따른 기술로 인해 인물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다.

10.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ㄱ~ㄴ 중 이해가 가장 부족한 학생은?

<보기>

선생님: 「예덕선생전」은 소외된 계층을 주요 인물로 등장시킨 작품으로, 당대에는 파격적인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작가는 스스로 일을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엄 행수의 삶을 긍정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양반들의 삶을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감상을 이야기해 봅시다.

해린: 미천한 신분의 엄 행수를 선생이라 부르는 선굴자는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안목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ㄱ

하니: 격식을 따지지 않고 실용적인 엄 행수의 모습을 통해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ㄴ

주원: 선굴자가 양반들과 사귀지 않은 것은 그들의 무능력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ㄷ

지수: 지위와 체면에 얽매어 스승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목은 양반 계층의 허위 의식을 나타낸 인물로 볼 수 있어요. ㄹ

은우: 검소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엄 행수의 모습을 통해 당시 무위도식하는 양반 계층을 은연중에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ㅁ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굴자(蟬橘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본탑 동쪽에서 사는데 마을 안의 뚝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 행수(行首)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일을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子牧)이 선굴자에게 물었다.

“그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텃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 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의 천한 사람으로 막일을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 서기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문하를 하직하려고 합니다.”

선굴자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거기 앉게. 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해 줘. 속담에도 있거니와 ㉠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굿을 못 한다고 하네. 자기 생각으로 이거야말로 내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 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그런 때 칭찬만 하면 아침에 가까워서 멧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흥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달라지네. 그러니까 그의 장처가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어름 어름 당장은 탄전을 한단 말일세.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골을 내지는 않을 것일세.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숨겨 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처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한다면 마치 가려운 데나 긁어 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할 것일세. 가려운 데를 긁는 데도 묘리가 있네. ㉡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에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네.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각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뺄면서 말하였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인 놀이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그러. 대체 장사치의 벗은 잇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벗은 아침으로 사귀네.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세 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잇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네. 이렇게 사귀는 벗은 천 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만 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세.

저 엄 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 그가 밥을 자실 때에는 굴떡굴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쿵쿨, 웃음을 웃을 때에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멍하니 등신과 같이 보이네. 흙으로 쌓고 짚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새우처럼 등을 꾸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를 짚어지고 똥거름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구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시월로 잡아들면 살얼음이 잡히네그러.

그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 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 똥,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가도 누가 염치 뻘뻘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굶어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려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돈이 많아

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그러.

㉢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엽교,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 등의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엄 씨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쭉하게 가꿔야만 일 년에 육천 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옷을 입고 띠 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 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그러고 돌아와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 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 박지원, 「예덕선생전」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2개)

- ① ㉠: 자목이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깨닫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선글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 세속적인 사귀의 요령으로, 상대방을 칭찬할 때 이외에는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③ ㉢: 자목이 진정 부끄러워하는 것은 미천한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잇속과 아침으로 사귀는 태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 ④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희화화하며 풍자하고 있다.
- ⑤ ㉢: 실제 지명의 열거를 통해 사실성을 부여하며, 엄 행수가 하는 일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12. <보기>의 과제에 대한 발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늘은 예덕 선생이 살았던 삶을 통해 작가가 추구했던 올바른 인간상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예덕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내용과 추구했던 인간상에 대해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① 소탈하고 실용적인 모습을 통해 양반들의 허례 허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② 무실역행(務實力行)하는 모습을 통해 무위도식하는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③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지배층의 욕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④ 어려운 이웃을 두루 돕는 모습을 통해 당시 양반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⑤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화려함을 추구하는 당시 양반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굴자(蟬橘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본탑 동쪽에서 사는데 마을 안의 뚝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 행수(行首)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일을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子牧)이 선굴자에게 물었다.

“그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텃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 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의 천한 사람으로 막일을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 서기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문하를 하직하려고 합니다.” (중략)

선굴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그려. 대체 장사치의 벗은 잇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벗은 아침으로 사귀네. ㉠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세 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잇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네. ㉡ 이렇게 사귀는 벗은 천 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만 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세.

저 엄 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그가 밥을 자실 때에는 굴떡굴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쿵쿵, 웃음을 웃을 때에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멍하니 등신과 같이 보이네. (중략)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려 하지 않고 풍악을 잡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은 엄 행수가 저 나른 똥이 서울 근교의 채소를 잘 자라게 한다는 것으로, 엄 행수의 일이 결코 천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① ㉡은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세속적 사귀의 요령에 해당한다.

③ ㉢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으로,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관용적 표현이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④ ㉣은 중국의 농민 반란을 주도한 인물들로, 설의 법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욕망을 드러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⑤ ㉤은 신분과 외양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위선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정답 ①

㉠은 미천한 자인 엄 행수와 사귀는 것을, ㉡은 잇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모습을 의미한다. 신분과 외양이 아닌, '마음'과 '인격'으로 벗을 사귀는 것 역시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사귀는 점에서 미천한 자인 엄 행수와 사귀는 것이 가리키는 것과 같다.

② 잇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잇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사귀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사귀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3. 정답 ①

㉠은 신분과 외양이 아닌, '마음'과 '인격'으로 벗을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 '과장된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스스럼없이 숙내를 털어놓고 소탈하게 대화하는' 것은 체면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진실하게 사귀는

것이므로 가장 적절하다.

②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하며, 옷차림을 갖추고 체면을 차리는 것은 ㉠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상대의 허물을 감추고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것은 ㉠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자신에게 필요한 기프트콘을 선물해 주'며 잇속이나 아첨으로 사귀는 것은 ㉠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잇속으로 사귀는 것은 ㉠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정답 ⑤

㉠은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사귀는 것을 의미하며, 잇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다른 구절들과 다르다.

①, ②, ③, ④ 잇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세속적인 사귀를 의미한다.

5. 정답 ②

㉠은 설의법과 『주역』의 구절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욕망을 드러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① ㉡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보여 주며 이를 비판하는 구절에 해당한다.

③ ㉢은 의로움과 노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벼슬 자리'와 '재산가의 칭호'를 비판하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의로움과 정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구절에 해당한다.

④ ㉣은 겉과 속이 다름을 지적하며, 신분과 외양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구절에 해당한다.

⑤ ㉤의 '이 마음'은 '도적질할 마음이 없'는 엄 행수의 상태를 의미하며, 분수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을 성인에 빗대어 예찬하는 구절에 해당한다.

6. 정답 ⑤

윗글에서 '선굴자'는 사람이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다고 말하며, 타고난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분복'이 신분이었다면, 현대 사회의 '분복'은 집안이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은 적

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작가는 엄 행수의 태도를 칭송하는 선글자를 통해 당시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지나친 욕심을 비판하고 있다.

② '자목'은 '엄 행수'가 천한 일을 하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므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월감을 가지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당시 양반층이 지닌 생각을 대변한다.

③ 선글자가 '예의나 격식을 따지지 않으며 실용적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엄 행수의 삶'을 성인에 견준으로써 이를 예찬하고,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④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내용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과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7. 정답 ②

윗글은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윗글의 첫 번째 단락에서 예덕 선생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윗글은 '엄 행수'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지닌 '자목'과 '선글자'를 통해 두 사람이 지닌 시각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④ 윗글의 '선글자'가 세속적인 사귀는 방법을 가려운 데를 끊어 주는 상황에 빗대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윗글은 문답 형식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목'의 생각을 반박하는 '선글자'의 말을 통해 작가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8. 정답 ①

㉠의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에 대해 '선글자'는 그들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욕망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등록망축'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②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①

윗글의 '선글자'는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곳을 못 한다'라는 속담을 활용하거나 '시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윗글은 대화에 의한 전개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윗글은 역순행적 구성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윗글에서 음성 상징어를 이용하여 사건의 긴박성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윗글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10. 정답 ⑤

㉠. 윗글은 검소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엄 행수의 모습을 통해 당시 양반들의 허욕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 '선글자'가 미천한 신분의 '엄 행수'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은 신분을 중시하는 당시의 가치관을 뛰어넘은 근대적인 인식이므로 적절하다.

㉢. 윗글은 '선글자'의 말을 빌려 '엄 행수'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예찬함으로써, 대조적으로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선글자'가 양반과는 사귀지 않으면서 미천한 신분의 '엄 행수'는 '선생'이라 부르며 사귀는 것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실용적인 '엄 행수'와 달리 양반들은 무능력하고 위선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글자'의 사귀는 것을 통해 양반들의 문제점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다.

㉤. '자목'은 '엄 행수'가 천한 일을 하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므로 '선글자'가 그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월감을 가지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당시 양반층이 지닌 생각을 대변한다.

11. 정답 ②, ④

② ㉠이 세속적인 사귀는 요령이라는 설명은 적절

하지만, 해당 발언은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단점을 지적할 때에는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④ ㉔에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엄 행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절의 내용과 의도를 고려할 때, 대상을 희화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㉕은 자기 허물은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뜻의 속담으로, '선글자'는 이를 인용하여 '자목'이 스스로 잘못을 깨치지 못하므로 가르쳐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③ ㉖의 '저기'는 미천한 자인 '엄 행수'와 사귀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는 잇속과 아침으로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 '선글자'는 ㉖을 통해 자목이 진정 부끄러워하는 것 역시 잇속과 아침으로 사귀는 태도임을 지적하고 있다.

⑤ ㉗에서 '왕십리', '살고지'와 같은 실제 지명을 열거함으로써 사실성을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엄 행수가 저 나른 똥은 서울 근교의 채소를 잘 자라게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가 하는 일이 천하지 않고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2. [정답] ④

윗글에서 '예덕 선생'이 어려운 이웃을 두루 돕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①, ②, ③, ⑤ 소박한 집에서 살며, 고기반찬을 탐내지 않고, 일을 할 때에는 의복을 차려 입지 않는다는 것 등을 언급하며, 타고난 분복에 맞게 살아가는 '예덕 선생'의 삶의 태도를 칭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13. [정답] ⑤

선글자가 엄 행수의 부정적 면모를 언급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①, ② 자목이 '그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텃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엄 행수를 가까이하는 선글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③ 자목이 신분이 미천함을 들어 엄 행수와 사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선글자가 엄 행수의 행실과 인격을 예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

하다.

④ 선글자가 '대체 장사치의 벗은 잇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벗은 아침으로 사귀네.'와 같이 말하며 잇속과 아침으로 맺어지는 세속적 사귀는 것을 비판하고, 진실한 사귀는 도리를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14. [정답] ④

㉔이 엄 행수가 외면적으로는 더러울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덕이 높다는 것을 예찬하는 구절인 것은 맞으나, 이를 반어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① ㉕은 잇속으로 사귀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선글자는 이러한 세속적 사귀는 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② ㉖의 '천 년 전의 옛사람'은 문헌 속 성현들을 의미하며, 선글자는 마음과 인격으로 벗을 사귀고자 한다면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어 진실된 벗 사귀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③ ㉗은 엄 행수가 저 나른 똥이 서울 근교의 채소를 잘 자라게 한다는 것으로, 엄 행수의 일이 생활에 구체적인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⑤ ㉘의 '선비'는 안분지족하는 엄 행수와 달리 자신의 곤궁이나 성공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선글자'는 이러한 '선비'들의 태도를 '수치스'럽다고 말하며 비판하고 있다.

15. [정답] ①

윗글에서 엄 행수가 짐 질 것과 탈 것이 있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는 모습을 언급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으며, '짐 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라는 『주역』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④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정답] ②

ㄱ. 윗글의 '선글자'가 세속적인 사귀는 방법을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상황을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다.